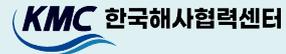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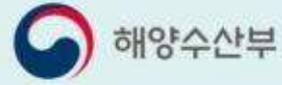


IMO 소식 & 국제해사동향



01

IMO 소식

IMO 사무총장, True Confidence호 희생자 애도



〈제10대 IMO 사무총장 아르세니오 도밍게스, 출처: IMO〉

-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아덴만 남서쪽 해역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 True Confidence호 선원 3명이 사망한 데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, 선원 보호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촉구하였음.
- ▶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“무고한 선원들이 희생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”라며, “우리 모두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선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”고 밝혔음.

IMO와 ILO,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논의 공동 진행

- 국제해사기구(IMO)와 국제노동기구(ILO)는 해사 분야 내 괴롭힘, 따돌림, 성희롱, 성폭력 등의 폭력 및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논의를 공동으로 진행함.
 - ▶ 지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된 3자 간 공동작업반(JTWG) 회의*는 선원의 폭력 및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, 체계, 정책 및 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음.
- * IMO와 ILO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정부, 선주, 선원 등 3자 대표들이 참석하여 선원 및 인적요소 관련 이슈(괴롭힘, 따돌림, 성희롱, 성폭행 등)를 다루는 작업반



〈IMO와 ILO, 폭력과 괴롭힘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조치, 출처: IMO〉

-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“우리는 선상에서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우리는 선원 폭력 및 괴롭힘 문제가 도덕적 문제만이 아니라 해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,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”라고 강조하였음.
- 3자 간 공동작업반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선원 의무훈련, 의료지침, 국제인식캠페인, 폭력 및 괴롭힘 데이터 수집 등 몇 가지 권고사항을 금년 5월에 개최될 제108차 IMO 해사안전위원회(MSC)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음.

김 현 중 영문에디터
kem5651@imkmc.or.kr

02

국제해사동향

EU·미국·UAE, 가자지구 구호물품 전달을 위한 해상 항로 개설

(출처 : Lloyd's List, '24.3.8.)

- 유럽연합(EU)·미국·UAE는 공동성명을 통해 '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'에 직면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항로 개설 의사를 밝힘.
 - ▶ 가자지구 원조를 위한 첫 번째 구호 물품 선적은 3월 8일에 개시되며,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키프러스를 경유할 것임.
-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 해안선에 식량과 물, 의약품, 임시 대피소를 실은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부두를 설치하도록 미군에 지시한 후 발표되었으며, 구호 활동을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와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임.
- 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"새로운 해상 항로 개설과 첫 시범 운항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"며, "UAE의 Mohamed bin Zayed 대통령이 1차 선적분을 확보했다"고 밝힘.
- 이번 EU의 구호계획은 일전에 키프러스의 Larnaca항에서 구호물품을 선적하려고 계획했던 "the Amalthea Initiative"를 기반으로 했으며,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가자지구에 더 많은 구호물품 전달을 위해 추가적인 항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.
-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"이번 구호 조치에 대해 이스라엘의 기준에 따른 보안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, 이후 가자지구에 대한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"이라고 밝힘.
- 한편, 영국해사무역기구(UKMTO)는 예멘 아덴지역에서 남쪽으로 50해리 떨어진 해상을 운항하던 선박 근처에서 두 차례의 폭발이 있었으나, 선박과 선원들은 무사하다고 보고함.
 - ▶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6일 예멘 후티 반군이 민간 벌크선인 True Confidence호에 공격을 가하여 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건 이후에 발생한 첫 사고임.
 - ▶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해당 선박에 대한 공격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함.

신지연 연구원
jyshin@imkmc.or.kr

인마셋과 아람코, 해상 5G Mesh 시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

(출처 : Seatrade Maritime, '24. 3. 6.)

-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인 아람코(Aramco)와 글로벌 위성통신회사인 인마셋(Inmarsat)이 아라비아만 해양자산의 5G 연결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협력 파트너십에 합의함. 이 파트너십은 5G Mesh* 네트워크를 테스트하여 기존의 1km 범위 제한을 깨고 세계 최초로 해상에서 장거리, 대용량 5G 모바일 통합 액세스 및 mIAB**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.

* 그물형 통신망 구조를 의미하며, 원거리 트래픽 전달 시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을 각 부분마다 거점이 생기는 구조로 특정 지역을 거치지 않아도 빠른 통신망을 구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

** Mobile Integrated Access and Backhaul :네트워크에서의 이동성 관리 기술



〈인마셋과 아람코 해상 5G Mesh 시험 협력 양해각서 체결, 출처:Inmarsat〉

- 이 시험은 페르시아만의 극심한 더위, 모래폭풍, 바람과 물의 증발 등 까다로운 현지 기후의 적응가능성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. 이 시험이 성공하면 지능형 원격 유지보수, IoT 센서 모니터링, 증강 현실 헤드셋을 사용한 작업 보조가 가능해져 아람코의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음.
 - ▶ 아람코의 Nabil Al-Nuaim, Sr. 디지털 및 정보 기술 담당 부사장은 “5G 메시 기술을 통해 고속 통신망을 원격 해외현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기업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일치한다”고 강조하였으며 “이 시험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아람코는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”이라고 기대함.
- Inmarsat Maritime의 Ben Palmer OBE 회장은 “5G Mesh 기술이 육상 기반 5G의 도달범위를 벗어난 영역의 경우 위성 커버리지를 활용하는 Inmarsat의 네트워크 솔루션이 연결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, “이 기술은 현장 효율성 극대화, 지속가능성 개선, 승무원 경험 향상,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”이라고 강조함.

박다영 연구원
iris23@imkmc.or.kr

싱가포르와 호주,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약 체결

(출처 : lloydslist, '24. 3. 5.)

- 싱가포르와 호주는 녹색해운항로(Green Shipping Corridor)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함. 이 협약은 양국이 협력하여 배출가스를 제로 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회를 모색하고, 효율적인 항만 기항, 통관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정보 교환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.
- 해상운송의 탈탄소화 추세에 따라 2021년 후반부터 40개 이상의 녹색해운항로 계획이 발표되었으나, 실행단계에 도달한 사례는 극소수임. 녹색해운항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화주로부터 더 많은 신기술과 값비싼 청정 연료의 사용을 지원받아야 함. 그렇지 않으면 동 프로젝트는 공허한 약속에 그치게 될 수 있음.
- 지난 12월 글로벌 해양 포럼(Global Maritime Forum)이 발표한 녹색해운항로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, 44개의 계획 중 단 2개만이 실행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, 대다수 계획들은 그동안 탄소배출 제로 선박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과 규제 논의를 진행하거나, 아직도 시작 또는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음.
- 한편, 2030년까지 배출량을 최대 30%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테르담-싱가포르 녹색해운항로 계획이 2023년 9월에 발표되었지만, 실제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된 바 없음.



〈 싱가포르 항만, 출처 : lloydslist 〉